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49. 퍼 놓인 작은 책

2013. 12. 08.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나팔에 대한 계시가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는 계시록 10장 내용을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0:1~11]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 그 손에 퍼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뢰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4 일곱 우뢰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뢰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 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퍼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여섯째 나팔 계시에 대하여 말씀을 끝마쳤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예, 그렇기를 기도합니다.) 나팔 계시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강하게 핍박하거나 방해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잘 보여준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때때로는 멸망으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돌보시지 않으므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셋째 넷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세상 열국과 혼잡 되어서 진리를 떠난 교회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으로 심판하셨는데, 결국 루시퍼가 그 조직을 차지한 상태가 심판이 되었고, 그렇게 변질된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무저갱 열쇄를 받아든 루시퍼가 다른 한 종교 세력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게 함으로 심판하신 모습을 다섯째 여섯째 나팔의 계시로 잘 가르쳐주셨습니다.(목사님이 나팔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섯째 나팔, 곧 둘째 화는 11장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장은 또 다른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은 10장 내용을 말씀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예,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4장, 7장, 10장을 삽입 장면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후 계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장면을 삽입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 같습니다. 10장도 여섯째 나팔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삽입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이나 난세를 당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굳게 서도록 먼저 위로와 승리의 보증을 하신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장이나, 5장이나, 7장이 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지요. 것처럼 10장도 진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서 12장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마치 역사에 대한 예언서 상하권 같이 계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2. 예, 그렇군요. 그런데 10장이 어떻게 전후 계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장면이 되지요?

답: 10장에 대한 말만이 아니고 그렇게 삽입 장면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4,5장은 일곱 인에 대하여 보여 주기 전에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의 위치를 보여주셨고, 7장은 나팔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10장은 여섯째 나팔이 끝나기 전에 복음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특히 여섯째 나팔이 끝났을 때 어떤 기별을 증거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12장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시기에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 어떤 내용일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3.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그렇게 해야지요. 이미 10장을 다 읽었습니다만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차근차근 읽고 설명하도록 해 봅시다.

[계10:1]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의 차림새는 구름을 입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구름이 동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17:5에는 변화산에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습니다. 또 24:30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사도행전 1:9에는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으며 계1:7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 아닙니까.(글쎄요? 1장에서 보았지요?) 예 1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 번 찾아봅시다.

[계1:15,16]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10:1은 발이 불기둥 같다고 했는데, 1:15절은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10:1에 얼굴이 해 같다고 했는데, 1:16은 얼굴이 해가 힘 있게 비추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똑 같이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 4:3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을 봅시다.

[겔1:28]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말씀은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지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는데,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이름, 유일한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예, 다 안다고 해도 확인하면 좋지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말씀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헬라어는 영어 처럼 수의 일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름으로 할 때에 “이름들”이라고 복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단수입니다. 단수는 오노마이오 복수는 오노마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스가랴 14:9을 한 번 읽어봅시다.

[슥14: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름이 홀로 하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개체이지만 이름은 여호와 하나뿐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라는 말도 우주에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들이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홀로 하나라는 말이 엑하드인데요,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엘로힘)이 엑하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라고 했습니다. 엑하드는 절대 단일을 뜻하는 말이 아니지요. 복합 단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된 분만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할 시간이 아닙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두른 그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으므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에스겔은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을 힘센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이것을 천사, 또는 사자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천사라고 번역했다고 피조물인 천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설명의 결론은 여기 나타나신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 예,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손에 책을 가지셨네요.

답: 예, 읽어봅시다.

[계10:2]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나타나신 예수님의 행동과 차림새를 살펴보면, 1.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10장에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늘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 표현이기도 생 각됩니다. 2.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이 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 발로 땅을 밟은 것은 온 세상에 미칠 내용이라는 말이고 4. 사자후를 외치는 것은 그 내용이 크게 외쳐져야 할 내용임을 나타냅니다. 5.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이 책과 관련되어 일어날 사건이 창조주와 특별히 관련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6. 이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책이 연구될 것을 나타내지요. 예수님의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은 펴 놓인 상태입니다. 특별히 펴 놓였다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덮여 있는 책이 아니고 펴진 책입니다. 즉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때 예수님 손에서 퍼지지 않았으면 사람이 읽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책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펴시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답: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인데, 10장과 11장 첫 부분을 자세히 읽 으면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이 끝난 후의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섯째 나팔 이 끝날 때쯤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나팔은 11장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쯤 해서 어떤 책이 예수님의 손에서 퍼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섭 리를 깨닫는 일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표상적 계시입니다.

5. 그 펴 놓인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습니까?

답: 예수님의 손에 펴 놓였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 은 66권의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서라고 해야 합니다. 66권 하나씩 하나씩이 다 성경책입니다. 그 66권의 책들이 모여서 성 경전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66권 중에 구약성경이 39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펴 놓 인 책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계시를 볼 때에는 아직도 신 약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손에 있는 책은 구약성경 39권 중 에 한 책이 틀림없는데, 구약성경 중에 닫힌 책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닫 혀는데, 이제 이 시기에 예수님에 의하여 퍼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을 살펴면 봉해진 책은 오직 한 책밖에 없습니다. 곧 다니엘서입니다.

[단12: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를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책이 퍼질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섯째 나팔 기간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다니엘서가 깨달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퍼 놓인 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는 분량이 많지 않고, 또 유일하게 봉해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다니엘서가 확실합니다. 이 시기에 다니엘서가 연구될 것이고 깨달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인 것을 암시하셨지요.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때가 바로 여섯째 나팔 사건이 끝날 무렵이 됩니다. 그때 이 책이 예수님의 손에서 퍼진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펴서 손에 들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마24장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셨겠지요.

6. 그런데 예수께서 왜 땅과 바다를 밟고 있습니까?

답: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야기 하지요.

[계10:2,3] 그 손에 퍼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이 퍼 놓인 책을 깨달았을 때 그 미치는 지역이 온 세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외치는 소리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크고 두려운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은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 보면 아마도 6,7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7. 그런데 사자후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발한다고 했는데, 우레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레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답: 먼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야기합니다.

[계10:4]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봉하고”는 헬라어 “스프라기손”입니다. 그것은 “숨기다”라는 뜻인데 여기 외에 22:10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인봉하지 말라고 했지요. 이것은

다니엘 12:4의 봉함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계5:1에 인봉한 두루마리를 말할 때에도 인봉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에게 기록하는 것을 금지시킨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려는 태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알게 되겠지요. 바울도 주께로부터 하늘의 엄청난 계시를 보고 들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후12:2~4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실의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신29:29]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지 아니한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내주신 것은 열심히 연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곱 우레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지 않은 것을 상상과 추측으로 부지런히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확실히 말씀해주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행1:7)라고 하셨는데, 요즘도 이 때와 기한을 알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참람한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깐 일곱 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말하지 못한 것이 생각납니다.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한 기억이 없는데, 목사님, 그렇지요?

9.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내용은 알 수 있나요? 일곱 인으로 봉해 두었는데요?

답: 일곱 인을 하나씩 떼 때에 나타난 사건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을 다 떼고 나면 두루마리가 열려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계시 중에 볼 때에 예수께서 그 인을 다 떼었으니,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곱 인을 다 떼어서 그 두루마리가 열리고 그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일곱 나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추측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나팔은 또 분명히 보여주셨으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연구하고 깨달아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언제 따라야 하겠습니까.

10. 예, 목사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0장의 펴 놓인 작은 책과 그것을 손에 가지고 계시는 분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다음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시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적 시간에 합당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역사적 시점과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